

**NOROO**

NOROO

Winter. 2015



Winter. 2015

Color & Community

나에게서 우리로,  
커뮤니티 사회

NOROO Quarterly Magazine | 2015년 겨울 34호

**NOROO**



NOROO 그룹 사보 – 2015년 겨울호  
발행일 : 2015년 2월 16일 / 발행처 : NOROO 그룹  
발행인 : 정준호 / 기획 : (주)노루홀딩스  
편집 및 디자인 : (주)리커뮤니케이션, (주)노루로지넷  
인쇄 : 성보프린팅 / 사진 : URL 스튜디오

**Special Theme****Color & Community**

04 **New Year's Message** 뿌리 깊은 NOROO, 미래로!

10 **Column** 사회인으로 산다는 것은

12 **Information** 가지각색 커뮤니티

16 **Interview** 비어있던 공간空間, 함께하는 공간公間이 되다  
인천 배다리의 요일가게 '다 괜찮아'

**Culture Gallery**

20 **Finance** 살고 있는 집으로 연금 받는 주택연금

22 **Shopping** 면세점, 알뜰 사용법

24 **Table** 집밥이 돌아왔다

26 **Interview**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안나의 집, 김하종 신부

30 **High Five** 2015년, 신규로 돌파한다!  
(주)노루페인트 수원지점

34 **Focus on NOROO** 2015, 새로운 컬러를 밝히다  
2015 NOROO INTERNATIONAL COLOR TREND SHOW

38 **Family Trip** 흙과 불, 나무로의 여행  
(주)노루오토코팅 박용규 과장 가족의 여주 여행

42 **Special Store** 생각하고 행동하여 이루어낸다  
마산 태극페인트

46 **News Briefing**

50 **1 Minute Guide** 눈을 지키는 스마트한 폰 활용

51 **Behind Cut**

**NOROO 그룹 사보 담당자**

(주)노루홀딩스 인사총무팀 박희정 주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42 캐피탈타워 A동 10층 T:02-2191-7700

(주)노루페인트 마케팅전략팀 지남철 과장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351 T:031-467-6128

(주)아이피케이 총무팀 송수경 주임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국민연금 부산회관 17층) T:051-580-8363

(주)노루오토코팅 전략기획팀 백현정 대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42 캐피탈타워 A동 10층 T:02-2191-7700

(주)노루케미칼 인사총무팀 한준 주임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공단 7길 28 T:031-8059-9517

(주)노루비케미칼 경영지원팀 이승아 사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단1로 111 T:041-620-6200

(주)노루코일코팅 지원팀 박서진 대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351 T:031-467-6486

(주)노루로지넷 총괄지원팀 전희경 과장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351 T:031-467-6363

(주)노루알앤씨 인사총무팀 현준 주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첨단로 285번길 8 T:031-599-7276

칼라메이트(주) 업무총괄팀 유은아 사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351 T:031-467-6379

## 뿌리 깊은 NOROO, 미래로!

2015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뒤 돌아보건대, 2014년은 'NOROO가 펼쳐가는 기술경영의 새 지평'이라는 기치 아래 노루의 저력을 발휘하여 훌륭한 성과를 이룬 한 해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루가족 여러분,  
올해는 회사가 창립 7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해방과 함께 당시 25세의 한정대 창업 회장님은 국력은 제조업에서 나온다는 믿음으로, '나의 조국을 위하여'라는 창업이념을 걸고 인쇄잉크 생산을 시작하셨습니다. 일제강점기에서 해방 후, 새로운 교과서와 지폐 인쇄를 위해 필요한 인쇄잉크 생산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후 회사는 사업의 계절성을 줄이기 위해 도료 사업을 더하여, 70년이 지난 현재 매출 1조 5천억 원 규모로 성장하였습니다.

오늘 뜻깊은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과 함께 잠시 회사 설립 당시인 광복의 1945년으로 돌아가 봅니다. 창업 회장님의 생산공장 창업에 영향을 주신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외삼촌이신 임국정 의사입니다. 지금부터 정확히 90년 전인 1920년 1월 4일, 일제강점기 당시에 용정이었던 현재의 중국 연변자치구에서 항일 무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용정 조선은행에서 15만 원을 탈취했던 철혈광복단 3 의사들 중 한 분으로, 27세 나이에 서대문 감옥에서 순국하셨고 1963년 대한민국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 받으신 분입니다.

또 한 분은 임국정 의사의 조카이자 창업 회장님의 외사촌 형님이 되시는 임병철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입니다. 해방 직후 창업 회장님에게 우리나라의 독립 후 새로운 교과서 인쇄와 지폐 제조에 없어서는 안 될 인쇄잉크 제조를 생업으로 할 것을 조언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회사의 창립 이념은 한 나라의 근본적인 힘을 키우는 길이 제조업에 있음을 알고 무일푼일지라도 폐기와 정열 그리고 불굴의 정신으로 생산공장을 건설하여 다시는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지 않는 강한 국가를 건설하는데 일조를 하겠다는 창업 회장님의 굳은 신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20년 전인 1995년, 창립 50주년 되던 해에 75세의 창업 회장님은 창립 기념 신문광고를 통해 다음과 같이 사업보국의 신념과 의지를 표현하셨습니다.

노루표의 50년은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는 50년이었습니다.

저는 '나의 祖國을 위하여'라는 信念을 가지고 生產과 製造業에만 沒頭하여 今年으로 創立 50周年을 맞이하였습니다.

50年이란 긴 歲月에 마음 속으로 느낀 것은 나라를 위해서各自가 自己 맡은 일에 責任을 지고 完遂하는 사람은 愛國者요, 反對로 自己職責에 대하여 無責任한 사람은 우리 社會에서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와 저희 임직원은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最善의 努力を 다할 것입니다.

1995년 11월 1일

회장 한정대

노루가족 여러분,  
1998년 창업 회장님의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제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일생에 가장 보람된 일이 무엇인지 아닌가? 바로 맨손으로 조국에 이만큼의 일자리를 만들고 가는 것이다.” 이 말씀은 제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생전에 창업 회장님께서 붓글씨로 써주신 글이 있습니다. 제 사무실에 걸어 놓고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글이지요. 바로 ‘無私大道’입니다. 기업은 公器이다, 즉 개인 소유로 보아서는 안 되고 사회와 국가의 것인 바, 그 경영을 책임 맡고 있는 사람들은 사적인 개인이 아닌 公人이라는 뜻입니다.

노루가족 여러분,  
우리는 국내외에서 새로운 판로 개척을 위한 노력과 함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불철주야 뛰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저는 새해 경영지표를 “뿌리 깊은 NOROO, 미래로!”로 제정합니다. 사람의 나이에는 한계가 있을지라도 기업의 수명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한 회사의 업력이 70년이 되었다 함은 보기에 따라 긴 기간이지만 세계적인 기업들에 견주면 그리 긴 시간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해외로 한 발자국 나가보면 백 년, 이백 년 된 회사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 임직원과 가족의 생활 터전인 회사를 끊임없이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 키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년간 개인 능력 향상과 기술 경영 체제의 정착화를 통해 저력을 길러 왔습니다. 그러한 바탕 위에 우리들의 팀워크를 십분 발휘할 때에 분명 우리는 더욱 큰 발전을 이루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는 사업의 기본에 충실하면서 기존의 도료와 수지부문 등 화학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시장을 확대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농업 및 생명과학 분야에서 향후 오십 년, 백 년 대계를 향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추가함으로써 회사 발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부단히 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창업 회장님의 사상을 결집한 NOROO Way의 경영철학인 ‘세상에 없는 길, NOROO가 만드는 새로운 길’을 열어 다 함께 미래로 나아갑시다.

끝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발전적 노사상생의 새로운 문화 창조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연수 노루페인트 노동조합 위원장과 그룹의 각 사업회사 노조위원장 및 집행부, 그리고 조합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노루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5일  
회장 한영재



color & community

## 나에게서 우리로, 커뮤니티 사회

“과거의 세계가 경쟁력 일변도였다면 이제는 공동체가 부각될 것이고 다른 개념들이 나타날 것이다.” 2010년 삼성경제연구소에서 폐낸 「금융위기 이후를 논하다」에서 이원덕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처럼 4년이 지난 지금, 끝이 안 보이는 경제 침체와 그 속에서 더욱 치열해지는 경쟁 구도 속에서 사람들은 ‘사회’에 대해 고민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다시 깨닫고 있습니다

# Color & Community

컬러 앤 커뮤니티

#1 Column

사회인으로 산다는 것은

#2 Information

가지각색 커뮤니티

#3 Interview

비어있던 공간空間,  
함께하는 공간公間이 되다

# 사회인으로 산다는 것은

위험사회, 분노사회, 피로사회, 승자독식사회, 격차사회…… 요즘 우리 사회를 진단하는 말들입니다. 그 진단명이 어두운 단어 일색인 걸 보면, 아마도 오늘을 사는 우리는 ‘불안’이라는 기분에 무겁게 짓눌려 있는 듯합니다. 불안은 우리를 몰아대지요. “이봐, 그렇게 높 놓고 있을 때가 아니지. 뭐라도 좀 해보란 말이야.” 그런데 뭘 하면 좋을까요?

글 ·『나는 사회인으로 산다』역자, 조한소 (울림두레생활협동조합)

## 자기계발에서 서로계발로

“그래, 살아남으려면 뭐가 됐든, 무슨 수를 쓰든 남들보다 앞서 나가야 해!” 불안에 몰린 우린 너나 할 것 없이 ‘자기계발’에 몰두합니다. 자기계발! 참 좋은 말이지요. 우리는 평생 자기를 갈고닦아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쓰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요즘 말하는 자기계발은 인격의 도야보다는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기 자신을 다그치는 내용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경쟁이라는 틀 안에서 모두가 승자가 될 수는 없다 보니, 이제는 경쟁에 치치고 밀려난 사람들을 위한 ‘힐링’이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 사회는 많은 것을 ‘자기책임’으로 돌리고 있지만 우리가 겪는 어려움 중에는 타인과 사회로부터 오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 ‘자기’만 계발해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개인적 해결에 골몰하죠. 어쩌면 좋을까요?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서로’를 계발해야 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힐링’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하는 힐링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 이웃으로서의 사회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래도록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서로를 발견하고 ‘사회인’이라는 역할에서 희망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흔히들 사회인이라고 하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 취직을 해서 제 손으로 밥벌이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우리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사회를 만들어가는 개인’이면 누구나 사회인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나이와도 관계없고 취직 여부와도 상관없습니다. 사회인이란 삶을 대하는 자세와 관계된 말입니다. 다시 말해 사회인이란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며 사회로부터 도움을 받는 동시에 사회를 더 좋게 바꿔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공식적인 경제 활동의 통계에 잡히지 않더라도, 그러한 모두가 있기에 사회가 작동되는 것이지요.

## 사회인으로 사는 법

‘사회인으로 사는 법’이라고 하면 조금은 거창하게 들릴까요? 하지만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한다”는 말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 주는 그런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회적 존재로서 우리는 ‘관계’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회에 눈을 뜨는 것은 관계에 눈을 뜨는 것이고, 관계에 눈을 뜨는 것은 새로운 자기 자신에 눈을 뜨는 것 이기도 합니다.

둘러보면 이미 우리 주위에는 모든 걸 자기책임, 혹은 남의 일로 여기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서, 또 가까운 주변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더 나은 해결책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박한 세상 속에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서로 돋고 보살피는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생존에 필요한 사회적 유대를 길어 올립니다. 이처럼 사회를 떠받치는 상호부조관계가 면면히 이어지고 있음을 깨닫고 그 가치를 재발견할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조금씩 인간적인 모습을 되찾을 수 있겠지요. 여러분도 함께 주위를 돌아보고 손을 맞잡아줄 이웃을 만나러 가지 않겠습니까?

Color &  
Community

컬러 앤 커뮤니티  
#1 Column



# 가지 각색 커뮤니티

함께 손을 맞잡을 이웃, 즉 커뮤니티를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큰 일로 여겨지지만, 그 첫 걸음은 매우 소소하게 시작됩니다. 「유쾌한 혁명을 작당하는 공동체 가이드북」의 세실 앤드류스는 일단 거실에서 든 부엌에서든 모여서 웃고 떠들고 마시며 잡담하라고 말하죠. 여러분의 지역에는 어떤 공동체가 있는지 찾아 보세요. 당신이 먼저 제안해 주신다면 금상첨화!

## Color & Community

컬러 앤 커뮤니티  
#2 Information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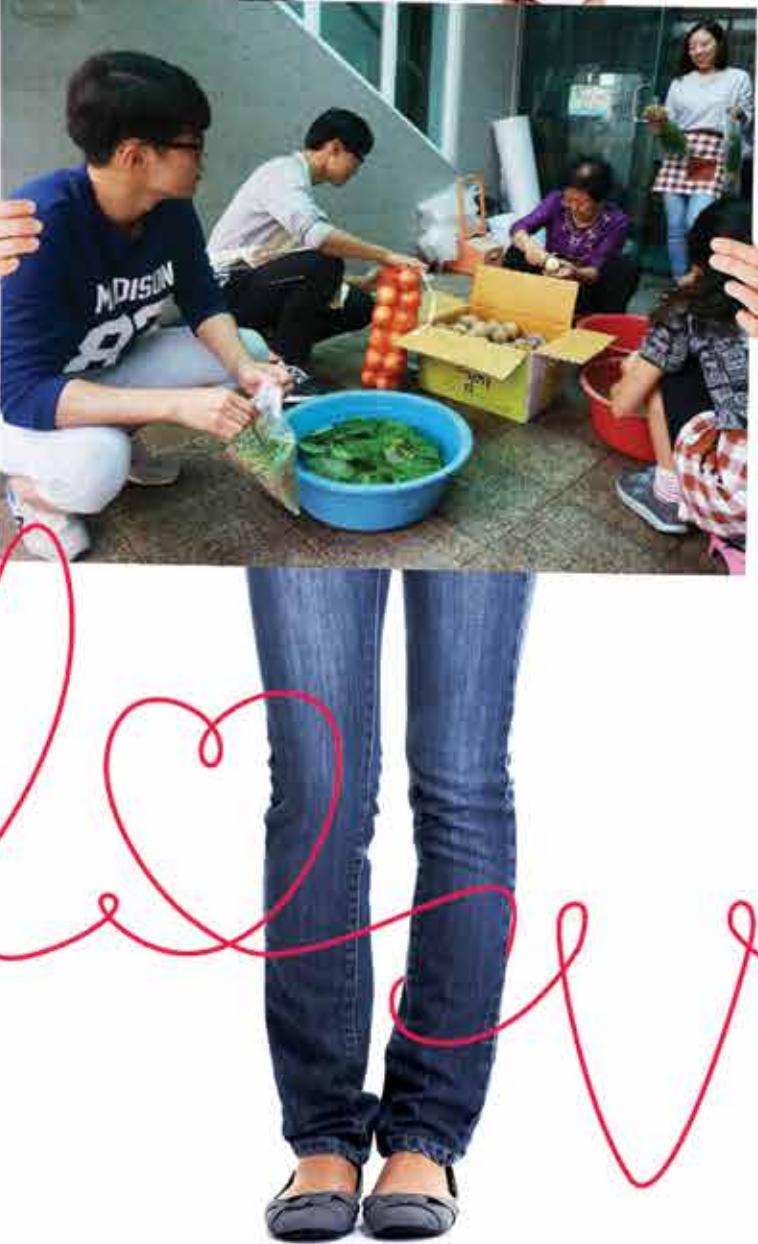
NOROO QUARTERLY MAGAZINE

### 어울려 살고; 셰어하우스

작년에 방영된 드라마『괜찮아 사랑이야』에서 등장인물들은 가족 아닌 이들과 한 집을 빌려 살며 희로애락을 나눕니다. 여러 가족이 모여 집을 짓거나, 월셋방을 살던 싱글들이 모여 집 한 채를 빌려 함께 생활하는 셰어하우스는 마포구 성미산의 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소행주)나 청년층의 비영리주거모델을 제안하는 민달팽이유니온, 국내 첫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인 서울 가양동의 이음채 등으로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소행주의 주민은 “공동의 공간이 있으니 오히려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고, 서로 도와 사니 즐겁다”고 말합니다.

13

WINTER. 2015.



### 같이 먹고; 반찬나눔, 먹거리나눔

반찬나눔공동체 '찬이네'를 아시나요? 서울시립대 학생들이 적은 금액으로 양질의 식사를 하기 위해 함께 반찬을 만들어 나누는 공동체를 형성했는데 여럿이 모이자 요리 양을 더 늘릴 수 있게 되어서 독거노인분들께도 반찬을 나누는 봉사를 했답니다. 많은 양의 요리를 할 수 있는 장소로 동네 경로당을 찾다 보니 어르신들과 친분도 쌓고, 지역에 애착도 생기는 일석다조의 활동이었다네요. 먹거리나눔의 기회는 멀지 않답니다. 육은 김장김치 처리 겸, 김치전 수북이 부쳐 옆집 벨을 누르는 것도 나눔의 시작이지요~



### 아플 때 기대고;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풀 때 찾는 병원의 주인이 나라면 어떨까요? 어떤 병원보다도 신뢰가 갈 것입니다.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즉 의료사협은 지역 주민들이 출자금을 내어 세운 비영리 병원으로 1994년 안성에서 시작되어 2012년 기준 전국에 300여 조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료사협의 의원은 전국 의원 평균보다 향상제 처방률이 낮다는 통계도 있는데요, 원주의 '우리동네의원'의 경우에는 '6분 진료'가 원칙이고, 어떤 한의원은 체질에 맞지 않는다면 보약을 안 지어주기도 했답니다. 나의 주치의가 있는, 내가 주인인 병원, 멋있지 않나요?



*Color & Community*  
컬러 앤 커뮤니티  
#2 Information

## 서로 도와 일하고; 공간공유 상점

카페 비하인드를 오래 운영하던 사이건축의 임태병 공동대표는 생각했습니다. '그간 인연을 맺은 이들과 원가 함께해 보고 싶다'고요. 그 생각은 건물주의 무리한 요구로 쫓겨나는 임대 가게들의 사연을 들으며 상업 공간으로 구상되었고 동교동의 <어쩌다… 가게>는 그 렇게 타인에 대한 고민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곳은 각각의 주인이 있는 카페, 미용실, 책방, 위스키 바 등이 어우러져 독특한 매력을 낳습니다. 따져보면 모든 상가가 다양한 가게를 품고 있는데, 어떤 차이가 이러한 분위기를 만드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함께'라는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 함께 키우고;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육아의 뜻은 부모에게만 있지 않다는 말이지요. '내 아이를 맡기거나 남의 아이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아이들을 함께 키우기' 위해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www.gongdong.or.kr](http://www.gongdong.or.kr))>은 협동조합을 만들어 어린이집과 초등 방과후 생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성원들이 뜻을 모으고 출자금을 모아 공간을 만들었으며 아이들에게 공동체적인 삶의 방식을 어릴 때부터 익힐 수 있게 함은 물론이고, 부모와 교사들 또한 이를 통해 재사회화를 추구하게 되었답니다.

## 생산과 소비를 협동하고; 생활협동조합

공동체 이야기를 하다보니 협동조합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 가장 친숙하게 듣는 협동조합은 아마도 한살림, 두레생협, 자연드림 등 친환경 먹거리를 위시해 구성된 '생활협동조합(생협)'일 것입니다. 농업용어사전에 따르면 생협은 소비자 스스로 생활 안정과 생활 문화의 향상을 기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생활 물자 구매 등의 사업을 벌이는 협동조합 조직이라고 합니다. 이들 생협은 생산자와 연대하여 농촌을 살리고 정직한 기업을 응원하며 소비자는 건강한 밥상과 밑을 수 있는 제품을 구입하지요. 또한 지역 조합원들의 다양한 모임을 후원해 공동체 문화를 키우는 데 공헌하고 있습니다.



# 비어있던 공간空間, 함께하는 공간公間이 되다

## 인천 배다리의 요일가게 ‘다 괜찮아’

인천 배다리 거리는 한때 전국 3대 헌책방 골목으로 꾸힐 정도로 많은 헌책방이 밀집하여 애서가들을 불러모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의 흐름과 함께 헌책방이 줄고 찾아오는 이들도 둔해지며 빈 공간도 늘었는데요. 이 공간을 모두의 곳으로 만든 가게가 있어 눈길을 끕니다. “들어와봐~ 우리 함께 그림도 그리고, 뜨개질도 하자. 뭐든 다 괜찮아!”라는 배다리의 요일가게 ‘다 괜찮아’입니다.

### 모든 요일의 가게

소박한 나무문을 열자, 열기 품은 난로가 정겨움을 더합니다. 모서리가 넓은 붉은 벽돌과 7미터 높이의 상량문이 나이를 말해 주는 이 공간에 수요일인 오늘은 화가 조우 씨가 주인이라 이젤이 놓였군요. 요일가게는 요일마다 주인과 함께 풍경이 바뀝니다. 월요일엔 꼬꼬마 극장, 화요일엔 핸드메이드 공방이 열리고 수요일은 조우 씨의 그림 수업, 목요일엔 뜨개질 공방, 금요일엔 점심 밥상을 함께 하지요. 토요일은 타로로 힐링하는 날입니다. 해당 요일의 가게 주인은 수업 외에도 손님에게 차를 팔고, 요일가게 안의 선반에 입점한 ‘가계속가게’의 물건도 팝니다. ‘가계속가게’의 주인까지 합하면 요일가게의 주인은 총 18명. 그러나 그들은 협동조합을 꾸린 것도, 보증금을 나눠낸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함께’할 뿐이죠. 이 자유롭고 협거우며 정다운 협업의 구조를 만든 이는 배다리의 생활문화공동체를 꿈꾸고 실행해 온 청산 씨입니다.



비가 와서 좋다!

바람 소리가 기분 좋다

꽃들이 개화해 좋다

책상은 저녁에 괜찮다



## Color & Community

컬 러 앤 커 뮤 니 티  
#3 Interview

### 함께라면 다 괜찮아

요일가게의 전물은 원래 버려진 창고였습니다. 같은 건물에서 배다리안내소와 생활사전시관, 나비날다 책방 등을 운영하는 청산 씨는 그 공간이 못내 아쉬웠답니다. “배다리안내소는 이 근처를 찾는 이들에게 길 안내도 하고 거리 소식도 알리며 차도 마실 수 있는 쉼터입니다. 사람이 오가고 인연이 쌓이면서 여러 가지 모임이 생겨나 다른 공간도 필요하던 차에 이 공간의 쓸모를 발견한 것이죠.”

그의 뜻에 동참한 3명이 월세와 전기세를 나눠내기로 하고 일을 진행시키던 중에 인천문화재단의 시민문화거점지원사업 공고는 인테리어 비용과 보증금을 충당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시멘트에 가려졌던 붉은 벽돌과 높은 천장이 드러나자 전시와 카페에 적합한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소정의 월세를 내는 요일가게 주인과 가계속가게 주인도 쉬이 모집되었습니다. 이내 드나들기 시작한 사람들의 호흡은 건물은 물론, 서로에게 생기를 불어넣었죠. “공간의 역할은 그런 것 같아요. 저에게서 시작한 공간이지만 여기 모인 사람들은 제가 아닌 서로에게서 자극을 받고 교류를 합니다. 혼자일 때와 함께일 때는 확연히 다르니까요.”

### 넘나듦의 자유

청산 씨는 배다리에서 자신이 여러 활동을 시작하고 지속할 수 있는 힘으로 ‘공동체 중심’을 이야기합니다. “내 것을 챙기다 보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마을을 생각하고 공적(公的)으로 움직이다 보니 오히려 용기도 나고 자유로워지면서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도와주는 분들도 제가 아닌 모두의 공간과 지역을 위한 것임을 아시니까요. 이렇게 모이니 누군가의 투자가 누군가의 혜택으로 돌아가고 또 다른 이에게 돌아오며 넘나드는 것이 자연스러워져요.”

경계, 기준 등을 넘어가거나 넘어오거나 하는 ‘넘나들다’란 말을 청산 씨는 자주 씁니다. 언젠가의 요일에 우리도 배다리를 찾아 나에게서 너에게로, 타인에서 자신으로 넘어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 CULTURE GALLERY

여러분의 일상엔 어떤 즐거움이 있나요?

정성스런 밥상의 따뜻함, 멀리 떠나는 여행의 설렘, 나누며 느끼는 봉사의 기쁨.

일상 속에 숨은 보석 같은 순간을 하나하나 찾아 보세요.



## 살고 있는 집으로 연금 받는 주택연금

통계청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960년 2.9%에서 2010년 11.0%로 상승하였고, 2026년에는 20.8%로 예상되어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이라 한다. 이런 급속한 고령화 현상은 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맞닿는다. 소득 감소 기간이 늘어 생활지금이 턱없이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이때 이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제도는 경제활동이 어려운 노령자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일정한 생활비를 지급받는 것으로 사후 상환이라 압박감이 덜하고 주거가 안정적이다. 그 자세한 내용은 Q&A로 알아보자.

글 · 한울세무회계사무소 김민건 대표 세무사 / 자료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 Q1. 주택연금제도의 가입 자격과 대상 주택은?

주택연금에 가입이 가능한 주택은 9억 원 이하의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노인복지 주택이며 오피스텔, 상가주택, 상가, 전답, 경매, 압류 중인 주택은 제외된다. 또한 만 60세 이상의 1주택 소유자면 가입이 가능한데, 배우자와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연장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다. 소득이나 채무의 유무와도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간혹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과 주택연금 제도가 혼동되기도 하는데, 주택담보대출은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담보대출 이외의 신용대출 규모에 따라 대출이 영향을 받으나 주택연금제도(역모기지제도)는 소득, 신용대출 유무에 관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 Q2. 주택 가격, 어떻게 평가하여 언제 가입해야 좋을까?

가장 궁금한 것은 내가 소유한 집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 즉 월지급금의 액수일 것이다. 주택연금은 가입자의 연령(부부의 경우 적은 나이 기준)과 주택 가격에 따라 액수가 달라지는데, 주택가격은 ①한국감정원 부동산테크의 인터넷시세(www.reit.co.kr), ②KB인터넷 부동산시세(www.kbstar.co.kr)의 기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단 담보 주택의 인터넷 시세가 없는 경우에는 ① 국토교통부의 주택공시가격(www.kreic.orl/realtyprice)과 ②한국감정원

의 감정평가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데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가격을 적용하고 그 감정 비용은 고객이 부담한다.

주택연금의 수령액 계산에는 주택 가격 외에 가입자의 나이가 중요하다. 부부의 경우에는 나이가 적은 쪽을 기준으로 하여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월지급금이 많아진다. 또한 가입 후 집값이 떨어지거나 올라도 가입 시 결정된 연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도 유념하자. 또한 주택가격이 하락해 주택금융공사의 손실이 커질 것에 대비한 보증료도 매년 납부해야 한다. 본인이 주택연금 가입 시 수령이 예상되는 연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2014년 1월 1일 기준으로 나이 70세, 3억 원의 주택은 매월 99만 9천 원을 종신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 Q3. 주택연금, 목돈으로 받을 수는 없을까?

주택연금 수령방식은 살아 있는 동안 계속 연금을 받는 종신방식과 일정기간 동안 연금을 받는 확정기간방식이 있다. 확정기간방식은 연령별로 10년에서 30년까지 선택하게 되며 짧은 기간은 그만큼 월지급금이 커진다. 종신방식도 월지급금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평생 동안 일정하게 받는 정액형, 처음에 적게 받다가 1년마다 3%씩 증액하는 증기형, 이와 반대로 감액해 받는 감소형, 초기 10년간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11년째부터 초기 연금의 70% 수준으로 받

는 전후후박형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면 증기형, 씀씀이를 당장 줄이기 어렵다면 감소형이나 전후후박형이 적합할 것이다. 가입 후 변경은 불가능하므로 신중해야 한다.

### Q4. 주택연금, 해지도 가능한가?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의 경우 중도상환 시 수수료가 있지만 주택연금제도(역모기지제도)는 수수료 없이 중도해지가 가능하다. 2회차 월지급금 지급 전까지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보증부대출 전액 상환을 하면 초기 보증료도 전액 환급되나 그 외의 경우에는 보증료가 환급되지 않는다.

또한, 주택 소유자가 도중에 사망하면 6개월 이내에 배우자가 채무인수를 해야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부부가 모두 사망했을 경우에는 연금의 지급이 중단되고 대출금은 경매 등 주택의 처분을 통해 상환되거나 직접 상환할 수 있다. 상환해야 할 대출금은 주택 가격 범위로 한정되어 그간의 대출금액, 즉 총 연금수령액이 주택 가격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되지 않으며 대출금액이 주택가격보다 적은 경우에는 상환 후 남은 주택의 지분이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덧붙여, 만약 주택연금제도 이용 중 이를 사용한다면 담보 주택을 변경해야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면세점, 알뜰 사용법

해마다 해외를 찾는 여행객이 늘고 있다. 해외여행 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면세품 쇼핑! 2014년 9월 이후로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가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되어 쇼핑의 폭도 넓어졌다. 해외 명품 브랜드에서 국내의 실용적인 화장품 브랜드까지, 다양한 제품들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면세점을 더 알뜰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공개한다.

## 온라인 면세점은 골고루 공략하기

비행기 티켓 발권을 했다면 일단 온라인 면세점 사이트를 주르륵 즐겨찾기해 두고 가격비교에 들어가 보자. 롯데, 신라, 신세계, 위커힐, 동화, 그랜드 등 온라인 면세점 사이트들은 첫 구입고객 쿠폰, 단골쿠폰, 이달의 쿠폰, 포인트 증정, 적립금 행사, 기획전 등의 이벤트가 상시 진행 중이다. 롯데와 신라는 적립금 사용이 용이하고, 신세계는 적립금을 더 챙겨 주는 이점이 있는데, 서로 다른 할인혜택을 모두 챙기려면 물건을 각 면세점 별로 나눠 구입하는 것이 이득이다. 또한, 각 사이트마다 매달 혹은 매주 만 원 가량의 적립금을 주므로 시기를 나눠 구매하는 것도 좋다.

각 면세점의 모바일 앱은 온라인보다 할인쿠폰을 더 풍성하게 제공하니 꼭 챙기자. 모바일로 구매한 상품은 굳이 교환권을 출력하거나 교환번호를 적어두지 않아도 된다는 편리함이 따라온다. 물론 스마트폰이 넉넉히 충전되어 있을 때의 이야기다. 온라인으로 여러 면세점을 이용했다면 출국장에서 면세점별 제품 인도 시간도 상당히 소요되므로 공항에는 여유 있게 가야 할 것이다.

## 오프라인 면세점, 쿠폰 들고 방문하기

면세점의 오프라인 매장은 시내 면세점과 출국 수속 후 들을 수 있는 공항 면세점이 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제품을 직접 보고 고를 수 있음은 물론 온라인에 노출되지 않는 특가의 상품을 만날 수 있어 좋다. 현재 롯데, 신라, 동화 면세점 등은 최대 80%까지 할인되는 시즌 오프 세일 중이다. 면세점에 가면, 먼저 고객센터를 찾아 회원카드를 만든 후 쇼핑하자. 최소 5%부터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워커힐면세점의 경우엔 SK텔레콤의 T멤버십 VIP 등급 고객에게 멤버십 할인 한도 차감 없이 15% 할인을 제공한다. 공항면세점 가는 길에는 주변을 잘 둘러보는 것이 좋다. 공항철도와 공항리무진 버스 등에서 면세점 할인 쿠폰을 챙길 수 있다. SK텔레콤 사용자라면 로밍센터도 꼭 들러야 할 것이다. 면세점 직원 사이에서 최고의 쿠폰으로 꼽히는 10달러 이상 5,000원 할인 쿠폰을 얻을 수 있기 때문. 공항면세점은 현장에서 결제금액에 따라 선불카드를 증정하는 등 쇼핑욕구를 자극하는 이벤트들이 벌어지는데다가 각 점포 간 동선도 만만치 않으므로 탑승까지의 여유시간을 미리 체크해 두자.

## 두 손 가볍게 기내면세품

출발부터 면세품으로 무거워질 가방이 부담스럽다면 기내 면세품을 이용해 보자. 아시아나와 대한항공 모두 온라인샵(아시아나 기내면세점dutyfree.flyasiana.com, 대한항공 스카이숍cybersky-shop.koreanair.com)을 통해 출발 전에 미리 기내 면세품을 결제하여 귀국 항공편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무거운 술이나 용량 큰 화장품, 값비싼 보석류를 여행 중의 파손이나 보관 염려 없이 구매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이다. 참고로, 면세 한도에 술(1리터, 400㎖ 이하)과 향수(60ml), 담배(1보루)는 포함되지 않는다. 즉, 면세품과 해외 현지 상품의 총 결제 금액 600㎖ 이외에 술과 향수, 담배는 해당 양만큼 면세된다.





## 집밥이 돌아왔다

지난해, 외식업계의 화두는 단연 '집밥'이었다. SBS의 '빅데이터로 풀어보는 경제'에 따르면 2014년의 집밥 관련 소셜 버즈는 2013년도보다 50% 가까이 늘어났고 매월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외식업계 침입 트렌드 1순위 중 하나가 아이러니하게도 '집밥 컨셉트'였다는 것. 이에 SK 플래닛의 서현주 팀장은 "집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심리적인 허기와 결핍을 대변하는 키워드"라고 풀이했다. 따스한 밥 냄새 쫓아, 집밥의 귀환을 따라가 보자.

### 집밥 만드는 아빠

남이 맛있게 먹는 걸 보고 있노라면 식욕이 동하기 마련. 집밥의 귀환 전에 '먹방'이 있었다. TV프로그램에서 빠지지 않는 맛집 탐방이 식상해질 무렵, <아빠! 어디가?>를 통해 부엌이 익숙하지 않은 아빠들이 어설프게 차려낸 밥상을 맛있게 비우는 아이들의 먹방은 관련 식품 업계가 들썩일 정도의 시청자 반응을 끌어냈고, 이후 <슈퍼맨이 돌아왔다>, <집밥의 여왕>, <삼시세끼> 등을 통해 살림집의 식탁과 먹방들은 집밥에 대한 향수와 허기를 계속 자극해 왔다. 오로지 먹는 모습만을 보여주는 인터넷 1인 방송도 인기여서, 하루 15만 명이 시청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SBS 먹방의 시대>에서 문화평론가 김현식은 "먹방은 홀로 먹는 이들에게 같이 먹는 느낌을 강화한다"고 말한다. 먹방의 흥수는 1인 가구의 증가와 맞닿아 트렌드가 되었다.

### 밥집에서 먹는 집밥

트렌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여러 가지다. 그것은 다층적인 집밥의 의미에서 기인한다. '함께 먹는 밥'인 집밥을 위해 혼자 밥 먹기 싫은 사람들을 모아 함께 식사를 준비해 먹는 소셜다이닝 사이트(집밥www.zipbob.net)가 생겨나는가 하면, '직접 만들어 먹어야 해서 귀찮은' 집밥을 위해선 조리 상태의 국과 반찬, 혹은 반조리 상태의 식재료와 레시피를 배달하는 업체(쿡찬www.cookchan.co.kr, 매직테이블www.magictable.co.kr)도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엄마가 해준 것처럼 제철재료의 국과 밥, 반찬이 있는 정갈한 밥상'을 재현하는 메뉴로 집밥을 내건 밥집, 가정식 식당들이 등장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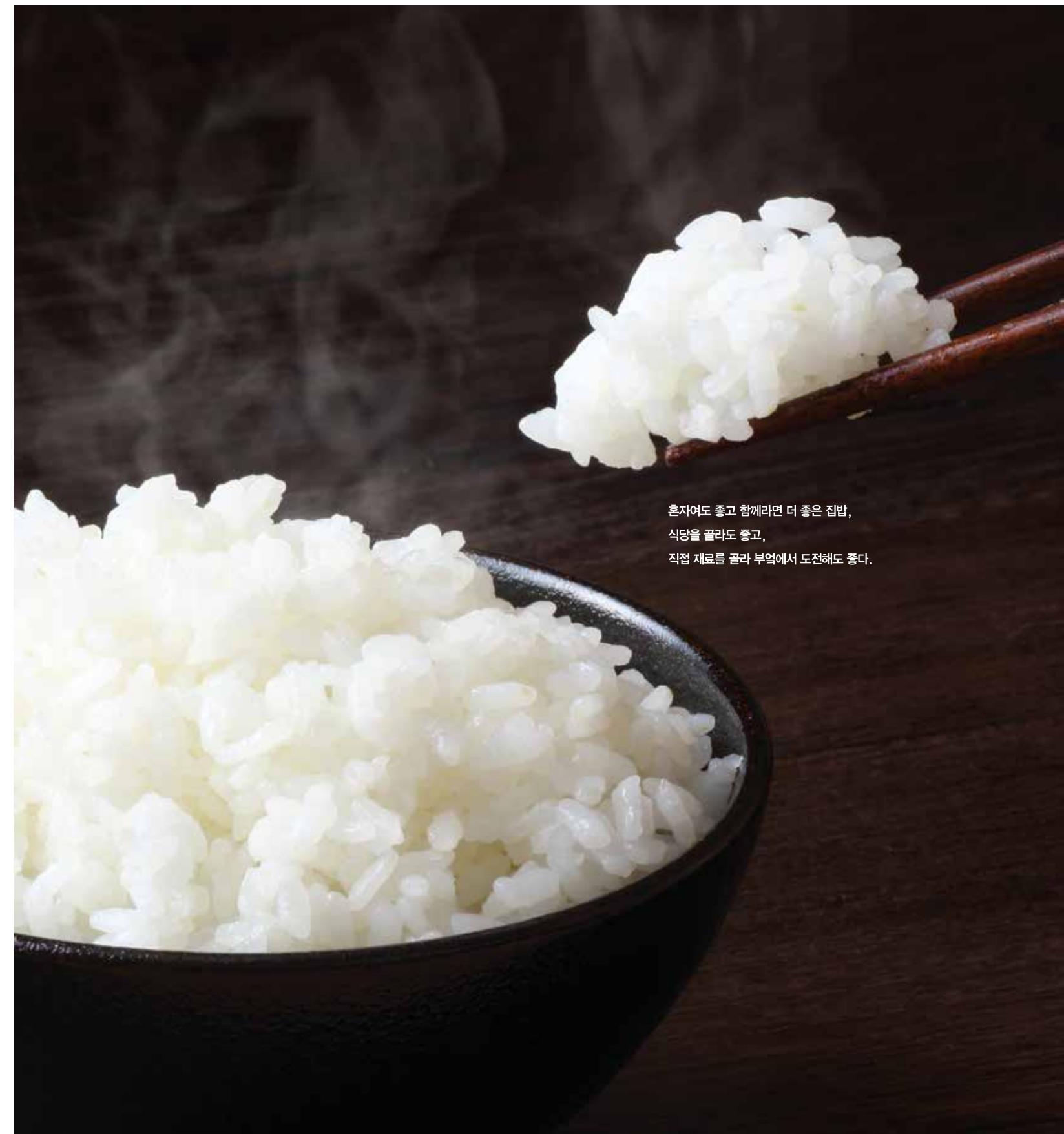
한남동의 <일호식>, 가로수길의 <쌀가게>, 서촌의 <밥 플러스> 등 이름난 '집밥' 가게들은 한 사람당 하나의 트레이에 그날의 메뉴를 차려내는데, 원가 한국적인 정다운 이름을 달고 오픈하는 최근의 밥집들에서는 이러한 '집밥' 스타일을 훤히 볼 수 있다. 사실 이러한 집밥의 원형은 진짜 집의 밥보다는 일본식 서빙에 있으니, 찌개 하나에 너도나도 숟가락 꽂던 원래 집밥의 입장에서는 아리송할 것이다.

### 수고와 정을 들인 집밥

이렇듯 집밥의 다양한 의미를 포개, 진짜 '집밥'을 만들어 보자. 믿고 보는 유명 요리 블로거 나물이의『뚝딱 나물이네 쉬운 집밥』에서 궁중요리전문가 한복려의『엄마의 집밥』,『매일 먹는 건강한 한식 밥상』 등 서점에 가면 집밥을 제대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요리책이 잔뜩 있다. 혼자 사는 싱글이라면 누군가를 초대해 함께 요리해 보는 건 어떨까.

한 매체가 인식 조사를 한 결과, 집밥을 챙겨 먹는 이유 중 1위가 '같이 먹는 사람과의 유대관계 형성을 위해'(41.5%), 그리고 2위가 '정서적으로 좋다고 생각해서'(20.1%)였다. 집밥에 대한 호응의 절반 이상은 맛이나 비용보다 정서적 이유에서 비롯된 셈. 그래서인지 요샌 요리뿐 아니라 요리를 함께 하는 이들의 일상과 이야기를 서정적으로 담아낸『킨포크 테이블』 등의 에세이도 인기다.

혼자여도 좋고 함께라면 더 좋은 집밥, 식당을 골라도 좋고, 직접 재료를 골라 부엌에서 도전해도 좋다. 몸과 마음에 힘이 되는 집밥의 귀환을 일단 환영해 보자!



혼자여도 좋고 함께라면 더 좋은 집밥,  
식당을 골라도 좋고,  
직접 재료를 골라 부엌에서 도전해도 좋다.

#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 천상에서 지상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김하종 신부는 (주)노루페인트 덕분에 쉼터가 한층 밝아졌다며 함박웃음으로 거듭 고마움을 표현했다. 멀고먼 이탈리아에서 날아와 25년째 한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이에게 이렇게 인사를 받으니 황송할 뿐이다. “한국인인 저희가 오히려 감사합니다”라고 훈장을 드려도 모자랄 것 같은데 말이다. 그랬다면 김하종 신부는 어느 인터뷰에서 그랬듯이 “봉사에는 국경도, 순서도 없습니다. 모두가 형제인 걸요”라고 답했을 것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오블라띠 수도회에 속한 김하종 신부는 동양철학에 매력을 느껴 선교지로 한국을 택했다. 1990년에 한국에 도착하여 성남시의 달동네에서 공부방을 열고, 자선식당을 운영하면서 그는 IMF로 노숙인이 급증하면서 1998년, 누구보다도 먼저 이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나섰다. 무료 급식소를 열고, 자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돈이 없어서 오전엔 후원금을 모으러 돌아다니고, 오후엔 급식소 일을 하는데 너무 지쳐 성당에 가서 십자가의 예수님께 협박했죠. ‘돈 안 주면 내일부터 문 닫을 거야!’라고요. 그러자 그날부터 후원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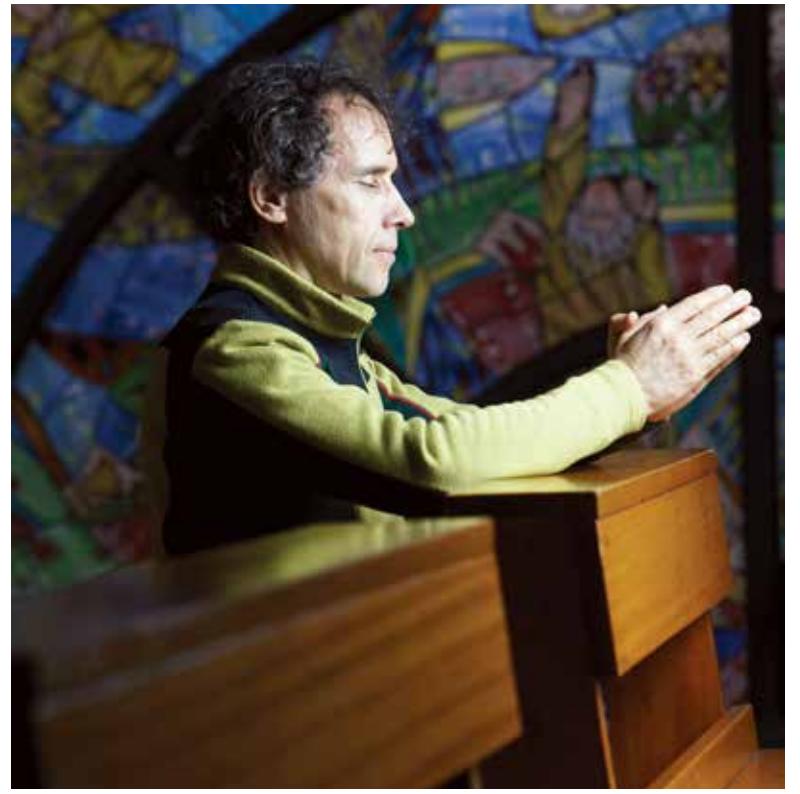
천상까지 도달한 그의 간절함은 지상에서도 힘을 발휘하여 지금까지 안나의 집에는 수많은 봉사자, 후원자들의 도움이 이어지고 있다. 김하종 신부는 지난해 호암상 사회공헌 부문에서 수상하기도 했다.



안나의 집,  
김하종 신부



지난해, (주)노루페인트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성남시에 위치한 푸른청소년쉼터의 외벽 보수 및 도색 작업을 하면서 그 운영을 맡고 있는 안나의 집과 인연을 맺었다. 안나의 집은 1998년부터 노숙인 급식소를 설립, 지금까지 100만 명이 넘는 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지어 먹이며 자활을 돋고 있다. 이 따뜻한 이야기를 이끌어온 김하종 신부를 만났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오블리띠 수도회에 속한 김하종 신부는  
동양철학에 매력을 느껴 선교지로 한국을 택했다.  
1990년에 한국에 도착하여  
성남시의 달동네에서 공부방을 열고,  
자선식당을 운영하던 그는  
IMF로 노숙인이 급증하던 1998년,  
누구보다도 먼저 이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나섰다.  
무료 급식소를 열고, 자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 고통은 발전의 기회

안나의 집은 무료 급식소를 중심으로 한 노숙인 센터 외에도 청소년을 위한 여러 쉼터를 운영한다. 갈 곳 없는 청소년들에게 밥을 먹이고는 “잘 가고 내일 보자”라고 하는 게 고통스러워 그들을 위한 방을 하나 얻은 게 시작이었다. 지금은 3개월부터 길게는 3년까지 직원의 보호 아래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단기, 중장기 쉼터와 공동생활가정, 자립관 등 네 곳의 쉼터에서 1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지낸다.

이외에도 안나의 집은 난독증을 알리고 난독증을 무료로 검사하며 이에 필요한 책을 번역하는 활동도 하고 있다. 난독증은 글자를 읽고 쓰는 데 어려움을 겪어 학습 장애를 유발하는데, 김하종 신부 자신이 난독증으로 고통을 겪었기에 이에 대한 이해와 도움을 넓히려는 것이다. 그는 그 고통을 행운이었다고 말한다. “저는 이 고통을 통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고통을 불행이 아닌, 발전의 기회로 삼으면 우리는 더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라고.

#### 희망의 끈을 잇는 길

2015년도, 그의 희망을 물으니 ‘청소년’과 ‘버스’를 이야기했다. 아이들이 직접 찾아와야 하는 쉼터로는 한계가 있으니 이동이 편리한 큰 버스에 쉼터를 꾸며 아이들을 만나고, 대화하려는 것이다.

“아이들을 더 사랑하고 싶어요. 버스가 있으면 한 달에 약 1300명의 아이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들에게 희망의 끈을 대어주고 싶은데 큰 돈이 드는, 쉽지 않은 일이죠”라며 그는 빠른 걸음을 재촉했다. 아이들을 만나러 쉼터로 가는 길, 마침 밥때가 되어 찾아오는 노숙인의 어깨를 두드리며, 연신 누군가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는 인사를 나누는 그와의 동행은 참으로 따뜻했다.

# NOROO PEOPLE

올해의 컬러인 마르살라는 고온을 견뎌 단단해진 벽돌처럼,  
시간의 깊은 향기를 품은 와인처럼, 강직함과 세련미를 보여줍니다.  
2015년, NOROO는 그처럼 견고한 뿌리와 아름다운 가지로  
더욱더 뻗어나갈 것입니다.



# 2015년, 신규로 돌파한다!

## (주)노루페인트 수원지점

(주)노루페인트 수원지점의 아침은 커피 타임으로 시작된다. 향긋한 커피와 티를 앞에 두고 지점식 구들이 다같이 모여 앉아 신규거래선에 대해 토론하고 몸을 푸는 간단한 체조 후 짜렁짜렁한 구호로 하루를 활짝 연다. “신규만이 살 길이다!” 2014년을 흔든 구호는 2015년에도 우렁찬 울림으로 수원, 용인, 안성, 화성, 오산, 광주, 평택, 양평에 퍼져나가고 있다.

### 가장 소중한 보물, 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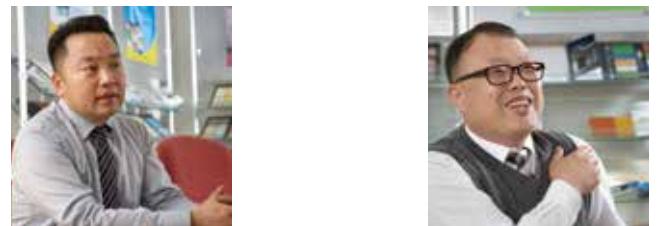
퀴즈 하나! 직사각형의 종이에 글자와 숫자가 적혀 있고, 지갑에 쏙 들어가는 귀한 것은? 머리 속에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것은 지폐일 것이다. 그러나 (주)노루페인트 수원지점의 직원들은 다른 답을 말할 것이다. 바로 ‘명함’이다. 수원지점의 직원들은 명함을 보물처럼 중히 여긴다. 명함을 주고 받는 새로운 만남이 신규 대리점을 늘리는 출발점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저희 수원지점은 신규 거래선을 늘리기 위해 새로운 대리점의 명함을 받아오면 그에 대해 전략을 세우고 토론합니다. 효과가 있어서 신규 거래선도 늘고 매출도 목표보다 초과 달성했지요.” 뿌듯한 결과를 이야기하면서도 조현성 부장의 얼굴에는 흐뭇함보다 결연함이 앞서 있다. 2013년 8월, 부산에서 수원으로 지점장이 되어 부임하면서 더욱 긴장하고 일 욕심을 가득 채운 그에게 2014년의 성과는 이미 지난 일, 지역 1위 탈환이라는 목표로 떨날이 더 많기 때문일 게다.

“수원 지점이 생긴 지 4년째 되었는데, 그동안 선배님들께서 기반을 다져주시고 직원들이 협력한 덕분에 이런 성과가 나온 것이죠. 무엇보다 직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수원 지역을 뛰뚫는 연성흠 차장, 배울 점 많은 반영훈 차장, 마케팅 전략이 강한 고재덕 대리, 대형 특약점 전문인 김태환 대리, 베테랑인 강순춘 대리,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줄 이강빈 신입 주임까지… 조현성 부장은 한 명 한 명 쟁겨 그 수고를 들려 주었다.

조현성 부장은 수원지점을 ‘외인부대’라 평한다. 수원 지역에 정통한 연성을 차장과 김태환 대리, 강순춘 대리 외에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반영훈 차장과 고재덕 대리가 새로운 자극이 되는 데다가, 신입의 활력까지 갖췄기 때문이다.





연성흠 차장



반영훈 차장

강순춘 대리



고재덕 대리



김태환 대리



이강빈 주임



#### 개성 강한 외인부대, 수원지점

조현성 부장은 수원지점을 ‘외인부대’라 평한다. 수원 지역에 정통한 연성흠 차장과 김태환 대리, 강순춘 대리 외에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반영훈 차장과 고재덕 대리가 새로운 자극이 되는 데다가, 신입의 활력까지 갖췄기 때문이다. 연성흠 차장 역시 ‘이제 수원지점은 공격적 현장 영업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고 평하고 강순춘 대리도 “지금의 멤버로 구성된 지 일년쯤 되어 이제 아귀가 딱 맞아 착착 돌아가는 것 같다”라며 이에 공감한다. 고객 감동 서비스를 위해 일주일에 한 번은 모든 직원이 거래선과의 만남에 함께하는 것도 지금의 팀워크를 만드는 데 한 몫 했을 것이다. 이 서비스를 베이스로 하여 1등 거래선을 성공시키기도 했다.

사랑방 세미나도 2015년의 결과를 기대케 하는 활동이다. 이는 대리점에서 필요에 따라 도장 기술자들을 모으면 기술을 설명하고 궁금증과 문제점을 해결하는 장이다. 명함 받기 운동을 하면서 숨어있는 시장이 많다는 것, 그리고 뛰면 그만큼 결과가 돌아온다는 것을 느꼈다는 고재덕 대리의 소감처럼 이러한 활동 역시 2015년을 흐뭇하게 만들어 주지 않을까.

#### 1위를 향해, 신규를 향해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조현성 부장은 다시 한번 “신규만이 살 길이다”라고 강조한다. “매스컴에서 경기가 더 힘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원지점은 2015년에는 기존 대리점을 잘 관리하는 동시에 신규로 유치한 대리점을 더 키워갈 것입니다. 명함 받기 운동을 지속하며 신규만이 살 길이란 것을 명심하고 명심하며 고객 감동으로 나아가야지요.” 조현성 부장의 눈빛은 과녁을 겨누는 화살처럼 신규, 그리고 1위로 향한다. 수원지점의 7인이 쏘는 화살들이 2015년의 목표로 날아가는 소리가 들릴 듯 생생하다.



조현성 부장



## 2015 NOROO INTERNATIONAL COLOR TREND SHOW



## 2015, 새로운 컬러를 밝히다

### 〈2015 NOROO INTERNATIONAL COLOR TREND SHOW〉

2015년이 채 밝기 전, 새해의 컬러 전망이 먼저 NOROO에 의해 환히 밝혀졌다. 2014년 12월 10일에 열린 〈2015 NOROO INTERNATIONAL COLOR TREND SHOW〉에서 NOROO는 팬톤과 함께 올해의 컬러 전망을 발표했다. 또한 이번 행사는 NOROO와 팬톤의 제휴로 설립된 〈NPCI〉의 출범 소식을 알려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 NOROO와 PANTONE의 NPCI

올해로 4회째를 맞는 〈NOROO INTERNATIONAL COLOR TREND SHOW〉는 컬러와 트렌드를 연구하는 이들이라면 꼭 쟁겨야 할 행사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날 코엑스 그랜드 컨퍼런스 흘의 350여 좌석을 꽉 채운 참가자들은 올해의 컬러와 새로운 제안들을 기대하며 무대를 응시했다.

인사를 위해 단상에 오른 (주)노루페인트 김수경 사장은 “여러분의 컬러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으로 청중을 이끌었다. 그는 “브랜드가 있는 회사는 이에 대해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코카콜라의 빨강과 스타벅스의 초록을 예로 들어 컬러의 중요성을 각인시키고, 이를 위해 NOROO색채연구소와 팬톤색채연구소가 제휴하여 설립한 NPCI(NOROO-PANTONE Color Institute)가 다양한 산업에 컬러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어 이번 행사를 위해 방한한 론 폰테스키 팬톤 부사장 역시 팬톤이 세계 최초로 이룬 협업의 상대가 NOROO인 것에 대해 자랑스러움을 표하며 앞으로의 컬러 전략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마르살라, 올해의 컬러

행사의 첫 번째 순서는 미래예측전략을 연구하는 리소페 이순영 대표의 강연으로 시작되었다. 이순영 대표는 시대의 특정 패러다임이 변화하면 컬러에 표상된다며 컬러의 변화는 새로운 시즌을 예고한다고 말했다. 또한 컬러를 색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무형의 기술로 봐야 한다며 '컬러가 가진 인사이트와 컬러를 다루는 이들이 중시해야 할 점'에 대해 발표하였다. 두 번째 강연자로 나온 팬톤색채연구소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토드 술만은 "컬러는 가장 처음 생각나고, 가장 마지막까지 기억되는 것, 마법적이고 미스터리 같아서 매료되지만 그 이유는 모르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그 신비한 속성을 이용한 여러 컬러 이미지들과 브랜드 전략들을 예시로 들었다.

잠시의 휴식 시간 후 이어진 세 번째 강연, 리트리스 아이즈먼의 '올해의 컬러' 소개에서는 드디어 아시아 최초로 2015년도의 컬러가 발표되었다. 그것은 브라운의 언더톤에 와인의 레드톤이 가미된 '마르살라(Marsala)' 컬러로, 포만감과 소박함, 세련된 느낌을 동시에 준다. 그녀는 "올해의 컬러를 선정할 때 팬톤은

감성적 이유를 듣다"고 하면서 이 컬러가 전 세계를 여행하며 모은 단초와 미팅을 통해 선정되었으며 올해의 컬러가 여러 업계의 컬러 선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15/16, NOROO의 컬러 솔루션

흥미진진한 컬러 여행은 NPCI 곽호천 소장의 15/16 NOROO 컬러 솔루션 발표로 마무리되었다. 그는 2014년도에 일어났던 여러 사건 사고와 사회 현상 등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현대의 문제들을 극복하고 넘어서는 Nu-Rules of Color라는 개념 아래 다양한 색채의 향연을 보여주었다. 또한 강연장 옆 전시장에 건축과 자동차, 각종 제품에 적용된 컬러 샘플을 전시하여 참석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컬러의 느낌을 직접 경험케 하였고, 15/16 Trend Color로 트리를 장식하여 컬러들의 아름다운 조화를 한눈에 전하였다.

이제 NOROO의 풍성한 컬러들이 강연장으로부터 세상 속으로 나왔다. 그들이 채워갈 2015년의 세상은 어떤 풍경이 될 것인가, 기대해 본다.

# 흙과 불, 나무로의 여행

## (주)노루오토코팅 박용규 과장 가족의 여주 여행

도자기는 흙과 불의 조화라 말한다. 인간이 최선을 다해 빛은 흙을, 불이 마무리해 준다. 반대로, 목조각은 자연이 키워낸 나무가 인간의 손에서 조각으로 완성된다. 이들은 자연과 인간이 협업하여 이룬 예술 작품이라는 것에서 모두 경이롭고, 감상자를 겸손케 한다. (주)노루오토코팅 박용규과장 가족이 하루를 보낸 여주에서 이 두 예술을 만났다.



물레 체험 후엔 곱게 다져진 태토를 수작업으로 꼬거나 밀고, 붙여서 자기를 만들어 본다. 붙이고, 다듬고, 모양을 내면서 지민의 예쁜 컵과 지유의 귀여운 연필꽂이, 엄마의 꽃무늬 과일접시와 아빠의 컵이 완성되었다.



### 흙투성이 도자 체험

“도자 체험 해 봤는데, 재미있어서 또 하고 싶었어요.” 올해 4학년이 되는 지민이가 차분하고도 예의 바른 목소리로 대답했다. 막 6살이 된 지유는 체험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아빠에게 축구를 하라고 졸라댔다. 하지만 도자가 될 준비를 마친 태토가 물레 위에 덕 얹히고, 자유자재로 형태가 변하는 것을 보자 지민은 물론 지유, 그리고 아빠와 엄마까지 시선을 떼지 못했다.

드디어 선생님의 시범이 끝나고, 직접 물레를 돌려 성형해 보는 시간. 지민은 신중하게 손을 갖다 대며 안정적인 자세를 취한다. 엄마인 길민정 씨도 소매를 걷어 올리고 열심히 모양을 잡았다. “중심 잡는 게 정말 어렵네요!”하며 박용규 과장 역시 바지에 흙이 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집중하는 모습이다. 지유 역시 자신의 손길에 태토가 불룩해지는 것을 보자, 물레에 딱 붙어서서 온갖 형태를 시도해 본다. 똑같이 집중하는 모습들이 역시나 한가족이다.

물레 체험 후엔 곱게 다져진 태토를 수작업으로 꼬거나 밀고, 붙여서 자기를 만들어 본다. 붙이고, 다듬고, 모양을 내면서 지민의 예쁜 컵과 지유의 귀여운 연필꽂이, 엄마의 꽃무늬 과일접시와 아빠의 컵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빛은 흙이 어떤 결과로 나올지는 불이 결정합니다. 우린 그저 흙의 상태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죠”라는 선생님의 말에 긴장도 되지만, 그보단 설렘이 크다. 모두 최선을 다하며 즐거웠으니 말이다.



### 목조각의 향기 따라

쌀이 유명한 여주의 한정식으로 든든한 점심을 마친 후 찾은 곳은 불교 예술품과 목조각으로 유명한 목아박물관이다. 중요무형문화재인 목아 박찬수 목조각장이 우리나라 불교미술을 위시한 전통 목조각들을 모아 선보이기 위해 세운 곳으로 박찬수 목조각장의 작품 외에도 귀한 수집품들과 전시 공간이 되는 사찰 건축물을 감상할 수 있다.

특별히 해설을 준비한 안내인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지민은 초롱초롱 눈을 빛내고, 지유는 조각상의 포즈를 흉내 내어 아빠와 엄마를 한껏 웃게 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십이지신상으로 꼽힌다는 석굴암의 십이지신상을 복제한 작품 앞에서 박용규 과장과 길민정 씨는 그 정교함과 섬세함에 감탄하는가 하면, 자매는 동물 이름을 맞히고 손에 든 각각의 무기를 살피며 재미난 놀 이를 펼친다. 벽에 걸린 갖가지 탈의 표정을 보며 누구를 닮았나 놀려 보는 것도 재미다. 자연스럽게 들른 기념품 가게에서는 조금 전 본 작품의 모형을 찾는 것도 자매들의 뜻이다.

탱그랑, 맑은 풍경 소리에 눈을 돌리니 한글을 사랑한 박찬수 목조각장이 박물관에 새겨 놓은 글귀 중 '가정이 행복한 사람'에 눈길이 머문다. 박용규 과장네라면 저 글귀에 부족함 없이 어울리리라. 웃이 지저분해져도 자녀들과의 체험에 몰입해 주는 아빠, 아이의 바람에 귀를 기울여 주는 엄마, 서로에게 웃음을 주는 지민과 지유가 있으니 말이다.



**이조도예체험장** • 쌔리산의 백토로 유명한 여주에는 예체험장이 여럿이다. 그중 이조도예체험장은 넓은 공간에서 넉넉한 체험 시간과 자세한 설명을 통해 블레 성형과 수작업, 도자기 페인팅 등을 즐길 수 있다.  
경기도 여주시 평강길 55  
031-885-2108



**목아박물관** • 체험장에서 약 20분 정도 떨어진 목아박물관은 고려시대, 조선시대 등 다양한 시대의 양식으로 지어진 건축물과 조각 공원,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잔디밭과 갤러리가 어우러져 있다. 목아박물관의 관람은 불교 미술 속의 여러 목조각에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이문안길 21  
031-885-9952



## 생각하고 행동하여 이루어낸다

### 한결같은 성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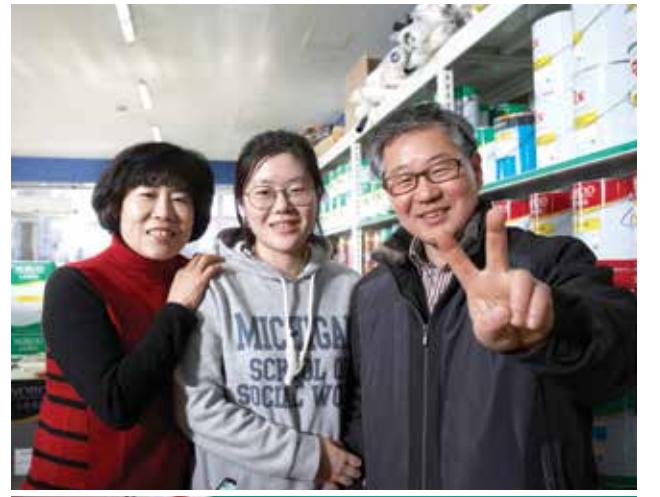
“글쎄요… 꾸준히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 싶네요.” 태극페인트 전성열 사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30대 초반에 오픈했어요. 대세인 노루페인트를 선택해서 지금까지 죽 이어왔습니다. 노루는 조색기 등 마케팅에서도 상당히 앞서가지만 직원들이 참 좋아요. 여러 회사 영업사원들이 많이 오지만 노루 직원은 유별나게 친밀감을 주는 것 같아요. 아내와 둘이서 하고 가끔 손이 급할 때 노루 직원들에게도 도움을 많이 받았죠.” 조용히 이어가는 이야기 중 ‘둘이서’란 말에 따옴표가 찍힌다. 힘도 품도 많이 드는 일을 부부만의 힘으로 해내다니, 보통의 성실과 열정만으로는 쉽지 않았을 터다.

“사장님께서 베푸시는 게 많아서 주변의 도움도 많아요. 거래처와 약속한 것은 닫았던 가게 문을 열고라도 갖다 주시죠. 일요일만 쉬고 성탄절, 석가탄신일 등 주중의 휴일은 쉬지도 않으시고요”라는 (주)노루페인트 창원지점 송상우 차장의 이야기는 태극페인트의 성장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태극페인트는 공단에 거래처가 있다 보니 야간 작업 중에도 페인트가 필요하다며 연락이 온다. “그런 연락에 잘 응대해서 그런지 오래도록 함께 일하게 되더군요. 거래처의 사명이 두 세 번 바뀌고 대표자도 무수히 바뀌었지만 계속 거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성열 사장은 새삼 이야기를 꺼내는 지금에서야 자부심을 가지게 된다며 겸손한 미소를 지었다.

### 마산 태극페인트

1988년, 서울올림픽이 열리던 해에 마산에서는 작은 페인트 가게가 문을 열었다. 작은 도로에 면한 가게에서 사장 부부는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문을 열고 페인트를 내주었다. 부지런한 하루하루가 모여 십 몇 년이 흐른 뒤 이 가게는 봉암공단 대로변 건물의 주인으로서 또다시 십 여 년 째 손님을 맞이하고 있다. 태극페인트가 지나온 25년간의 이야기다.





- 늘 함께하는 부인, 방학마다 도우러 오는 아이들 등 가족 모두의 성실에 더하여 전 사장의 실력도 태극페인트를 성장시킨 힘이다.
- 태극페인트 사무실에는 '생각하자! 행동하자! 이루자!'라는 표어가 붙어 있다. (주)노루페인트의 매출 올리기 코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방학 때마다 전 사장을 돋는 딸 전혜진 양과 함께 머릴 맞대고 지었다. 부인인 공윤희 씨가 아침저녁으로 청소하고 정리하여 깔끔하게 진열된 페인트는 물론 매일 쓴다는 조색기마저 반질반질 깨끗한 태극페인트, 2015년은 그 진열대만큼 반듯하게 앞으로 나아갈 것 같다.

#### 가족 모두의 힘으로

늘 함께하는 부인, 방학마다 도우러 오는 아이들 등 가족 모두의 성실에 더하여 전 사장의 실력도 태극페인트를 성장시킨 힘이다. 조색기가 없던 시절, 일일이 손으로 조색을 했던 그는 조색기가 나오자마자 구매하여 지금도 계속 쓰고 있는데, 직접 조색했던 감각 덕분에 조색 기 활용 능력이 뛰어나다. 전성열 사장은 “조색기, 측색기가 매출의 절반 이상을 해내는 것 같다”고 평하지만, 그 기계는 사람의 손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날씨와 계절에 영향을 받는 건축용 도료 외에도 공업용 도료 쪽으로 영업을 하여 꾸준히 매출 상승을 유지하는 것도 비결이다. 공업용 도료는 납품이 결정될 때까지 1~2년에 걸쳐 테스트를 해야 한다. “계속 투자를 하는 셈이죠. 하지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노루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협업을 통해 태극페인트는 지속적으로 공업용 도료 매출 증대에 힘쓰고 있다.

#### 생각하자, 행동하자, 이루자

태극페인트 사무실에는 ‘생각하자! 행동하자! 이루자!’라는 표어가 붙어 있다. (주)노루페인트의 매출 올리기 코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방학 때마다 전 사장을 돋는 딸 전혜진 양과 함께 머릴 맞대고 지었다. 부인인 공윤희 씨가 아침저녁으로 청소하고 정리하여 깔끔하게 진열된 페인트는 물론 매일 쓴다는 조색기마저 반질반질 깨끗한 태극페인트, 2015년은 그 진열대만큼 반듯하게 앞으로 나아갈 것 같다.

“2015년은 전년에 비해 최소 30%는 성장세를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원과 통합되면서 마산의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라서 도색도, 방수도 많이 하고요.” 가족이 함께여서 더 든든한 전성열 사장의 희망찬 기대는 그동안의 수고로 값진 결과를 돌려줄 것이다.



# News Briefing

## • 뉴스 브리핑



제51회 무역의 날, (주)노루페인트 3천만불탑 수상



(주)노루페인트-PANTONE, 노루팬톤색채연구소 출범



성남 '안나의 집' 사회공헌 진행



(주)노루페인트, '에너지를 나누는 이로운 기업'으로 위촉

### (주)노루페인트

#### 제51회 무역의 날, (주)노루페인트 3천만불탑 수상

지난해 12월 5일 코엑스에서는 제51회 무역의 날 행사가 열렸다. 무역의 날은 무역의 균형 발전과 무역입국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한 1964년 11월 30일을 기념해 '수출의 날'을 지정했던 것에서 1987년부터 '무역의 날'로 변경되었으며 2011년 12월 5일에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무역 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함에 따라 2012년부터는 매해 12월 5일에 무역의 날 행사를 치르고 있다.

2014년 우리나라 수출은 전년 대비 2.4% 증가한 5,731억 달러, 수입은 2.0% 증가한 5,256억 달러로 총 교역액 1조 988 억 달러를 기록해 2011년 이후 4년 연속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으며 무역수지는 474억 달러 흑자로, 2013년도의 440억 달러를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노루페인트는 이 행사에서 수출 3천만불탑을 수상하여 무역 흑자 대열에 합류하는 기쁨을 누렸으며 산업통상자원부가 2015년도의 수출입과 무역 규모가 2014년도 대비 각각 3.7%, 3.2%, 3.5% 증가할 것

으로 전망하는 만큼, (주)노루페인트 역시 수출 증가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다짐했다.

#### (주)노루페인트-PANTONE, 노루팬톤색채연구소 출범

(주)노루페인트는 미국의 글로벌 컬러회사인 팬톤 사와 지난 12월 9일 조인식을 갖고 '노루팬톤색채연구소(NOROO-PANTONE Color Institute : NPCI)'를 출범시키며 컬러 비즈니스 시장에 본격 진출하였다.

(주)노루페인트는 1987년부터 국내 페인트 업계 최초로 색채연구소를 운영하며 자동차, 가전, 건축환경 색채디자인 등의 분야에서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컬러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또 한 미국의 팬톤컬러연구소는 패션, 산업, 상업 계약 및 인테리어 디자인, 그래픽 아트, 광고, 영화, 교육 등의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컬러 솔루션을 제공하며 비즈니스를 확대해 왔는데, 팬톤이 제공하는 색채 정보의 주요 콘텐츠는 글로벌 색채 트렌드를 이끌며 전 산업 분야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팬톤이 선정하는 '올해의 컬러'는 패션, 인테리어, 광고 등 다양한 디자인 산업계에서 표준이 되고 있으며 전 세계 산업계와 학계의 커다란 관심을 끌어왔다.

(주)노루페인트는 이번 계약 체결로 페인트 컬러에 대한 기술 제휴뿐만 아니라 건축 및 자동차, 가전 산업과 함께 패션, 인테

리어 디자인, 광고 등 다양한 산업 디자인 분야에서 맞춤형 컬러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컬러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 서울대공원 감사의 날에 노루페인트 감사패 수상

지난해 12월 18일에 열린 서울대공원 아름다운 동행 '감사의 날' 행사에서 (주)노루페인트가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 행사는 한 해 동안 서울대공원에 깊은 애정과 사랑을 보낸 협력 기업 및 기업 단체 자원봉사자를 초대한 가운데 2014년을 되돌아보며 더 나은 2015년을 준비하는 감사의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아름다운 동행의 동영상을 감상하는 한편 서울대공원 안영노 원장이 발표한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주)노루페인트 외에도 여러 협력 기업들이 감사패를 받았다.

(주)노루페인트는 3년째 서울대공원과 MOU를 체결하여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보육원, 지역 사회에도 페인트를 후원하는 등 다양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 성남 '안나의 집' 사회공헌 진행

(주)노루페인트는 지난해 11월, 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성남시 푸른청소년쉼터 안나의 집'에 페인팅 봉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봉사는 성남 안나의 집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 쉼터

의 건물이 노후되어 건물 내부로 물이 새어 들어오는 등 외벽 페인트 공사가 필요해짐에 따라, 성남시 푸른청소년쉼터(안나의 집 김하종 신부)와 (주)노루페인트 수원지점이 함께 외벽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외벽 페인트 공사 완료 후 안나의 집 김하종 신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노루페인트에서 꿈꼼하게 잘 마무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고 말하며 쉼터의 청소년들이 직접 고른 컬러로 꾸미게 되어 더욱 의미 있는 작업과 애착이 가는 공간이 되었다고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달하였다.

#### (주)노루페인트, '에너지를 나누는 이로운 기업'으로 위촉

지난 1월 20일 서울시청 신청사에서 개최된 '에너지 나눔 실천에 앞장서는 기업으로 위촉장과 명패를 받았다.

(주)노루페인트와 함께 이번 행사에서 위촉된 기업은 IBK기업은행, 필립스, LG전자, GE라이팅코리아 등 15개 기업으로, 서울시는 이들 기업과 협력하여 저소득층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고효율 LED 조명을 보급함과 함께 열섬 현상 완화와 낭방 에너지 절약을 위해 옥상의 색을 하얗게 바꾸는 옥상 캠페인, 문을 열고 냉난방을 하지 않는 척한 기계 캠페인, 에너지 효율이 높은 생활조리기구 사용 캠페인 등의 에너지 나눔 실

# News Briefing

## • 뉴스 브리핑



김용목 전 노조위원장, 경기지역본부 사무처장 당선



(주)노루비케미칼, 중국 염성 공장 착공식 진행

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준비되고 있는 사업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절수기 무상 설치, 에너지 빈곤층 대상 보일러 청소와 문틈 방풍재 시공, 전기와 물을 아껴 에너지가 필요한 이들과 나누는 에너지 공유 프로젝트 등이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행사에서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복지 사업에 앞장서는 기업들 덕분에 ‘함께 따뜻한 서울’을 위한 온기가 확산되고 있다”며 “에너지를 나누는 이로운 기업단 출범을 계기로 환경과 나눔을 우선시하는 기업들이 더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용목 전 노조위원장, 경기지역본부 사무처장 당선

지난 1월 25일, 제12대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사무처장 선출 선거인 대회에서 (주)노루페인트 김용목 전 노조위원장이 94.1%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됐다. 새 사무처장에 당선된 김용목 전 노조위원장은 2014년까지 NOROO에 몸담아 오면서 대한민국 노사 문화에 특유의 긍정 에너지를 전파하며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사회적 지위 향상에 늘 앞장서 왔다. 김용목 한국노총 경기지역 사무처장은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좋은 기업들이 경기도에 많아져야 한다”며 “고용창출, 일자리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결국 경기도를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

다. 그는 또한 “사회양극화에 대해 노동 단체에서도 사회적 책임을 절실히 느끼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지원하는 봉사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을 위해 노동 운동을 추구하는 본부가 되겠다”고 밝혔다.

### (주)노루비케미칼

#### 중국 염성 공장 착공식 진행

(주)노루비케미칼은 2014년 12월 15일에 중국 염성 보봉진 인근의 염성 법인 공장 부지에서 공장 설립을 위한 착공식을 진행했다. 염성(옌청)은 청도와 상해의 사이에 위치한 중국 강소(장쑤)성의 도시로, 동쪽으로 황해에 임해 있다. 인근에 기아자동차의 1, 2, 3 공장이 위치해 있으며(연산 60만 대) 현재 600여 개의 한국 기업들이 입주해 있다. 한국의 남원, 광주시와 자매 도시, 우호도시 등을 맺어 오랜 기간 교류해 온 곳이기도 하다. 염성 공장은 부지 6,000평에 초기 생산량은 연간 3,000톤을 계획하고 있다. 이 부지 내에는 본관동, 생산동, 제품 창고동, 원료 창고동이 들어설 예정이며, 물량이 10,000톤이 넘어갈



칼라메이트 논현점 리뉴얼 오픈

### (주)칼라메이트

#### 칼라메이트 논현점 리뉴얼 오픈

칼라메이트 논현점이 2개월간의 리뉴얼 공사를 마치고 지난해 11월 5일 오픈 행사를 열었다. 새단장한 칼라메이트 논현점은 본관과 별관 두 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관은 팬톤 프리미엄 페인트와 수입 페인트, 페인트 관련 상품의 판매 공간, 별관은 페인팅 DIY 카페, 페인팅 아카데미 등 고객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되었다. 국내 최대 컬러(6,500 컬러)를 보유한 칼라메이트는 이로써 Premium Paint 전문 매장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은 물론, 높아진 고객의 눈높이와 기대욕구를 충족 시킬 수 있게 되었다. 오픈 행사에는 (주)노루페인트 안경수 회장, 김수경 사장과 여러 내외빈이 함께하였으며 특히 듀렉스(DULUX) 브랜드 론칭을 기념하여 방한한 악조노벨 관계자들도 참석하여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것을 대비하여 추가 증설이 가능한 LAYOUT으로 설계되었다. 이날 착공식에는 변정권 (주)노루비케미칼 사장, 권지현 NRB 염성법인장, 류도연 노조위원장 등 (주)노루비케미칼 관계자를 포함해 주 거래선인 최진호 한일화 총경리, 양종만 성지 사장, 배래희 진텍 총경리 등 거래선 및 염성시 개발구 구빈 서기 외 다수의 염성시 주요 관계자 내, 외빈이 참석했다. 변정권 사장은 이날 중국어로 직접 하는 인사말에서 “한국에 있는 모회사 노루비케미칼은 미국, 체코, 인도, 브라질, 북경 법인에 이어 6번째의 해외 법인을 염성에 세우게 되었으며, 오늘은 그 염성 법인의 현지 공장을 착공하는 역사적이고 기쁜 순간”이라고 말하며 “염성은 중국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업 요충지로서 기아자동차를 비롯한 많은 국내외 기업들과 그 협력 회사들이 포진해 있는 바, 노루비케미칼 염성 법인이 이 주요 회사들에게 협력자의 일원으로서 최고 품질의 도료 제품을 생산하는 기지가 되고, 이를 바탕으로 많은 유관회사들에게 최선의 제품과 서비스를 발 빼르게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염성 지역 내에서 중국인 현지 직원들을 다수 채용하여 지역 경제 발전과 고용 창출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노루비케미칼은 중국 염성 법인 설립으로 중국 내 협력사들에게 최고의 품질을 지닌 자동차 플라스틱 용 도료를 신속한 서비스로 제공하게 될 것이다.



## 눈을 지키는 스마트한 폰 활용

몸 건강이 100냥이라면 그중 눈 건강이 90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눈이 우리 인체와 건강한 활동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출현 이후 여가 시간까지도 밝은 디지털 디스플레이에 눈이 노출되면서 현대인의 눈 건강은 위협받고 있지요. 그렇다고 모니터며, 스마트폰을 아예 안 쓸 수도 없는 법. 100세까지 건강한 눈을 위해 지켜야 할 것을 알아봅니다

먼 곳과 가까운 곳 등을 번갈아 보면 안구는 자체의 굴절력을 조절해 초점을 전환시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굴절력을 담당하는 모양 체나 수정체의 탄력성이 떨어지면서 초점 전환이 늦어지고, 가까운 것을 보는 것이 피로해지죠. 이러한 안질환을 노안이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스마트폰처럼 가까운 거리의 화면을 집중해서 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증상이 일찍부터 나타나는 '청년 노안'이 흔해졌습니다. 또한 평소 1분에 12~15회 정도이던 눈 깜빡임 횟수도 스마트폰을 볼 때는 그 절반 수준인 6회 정도로 떨어져 안구건조증을 낳기 쉽죠. 흔히 눈이 뻑뻑하고 충혈되는 안구건조증은 심해지면 다른 안질환의 위험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을 예방하거나 완화하려면 다음과 같은 생활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 a. 스마트폰은 10분마다 쉬어 주세요

가능한 스마트폰을 안 쓰는 게 좋지만, 그래도 써야 한다면 10분마다 눈을 들고 10m 이상 먼 곳을 20~30초 가량 바라봅니다. 흔들리는 차 안이나 어두운 공간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것은 피해 주세요. 또한 스마트폰을 비스듬히 보면 난시가 유발될 수 있으니 정면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30cm 이상 떨어져 보는 것도 기억하세요.

### b. 스크린 필터로 블루라이트를 막아 주세요

디지털 디스플레이는 종이나 다른 물체 등의 피사체와 달리 피장이 강한 전자파와 빛을 발생해서 눈을 자극합니다. 특히 블루라이트, 즉 청색광은 가시광선 중 가장 높은 에너지를 가진 물질로 유일하게 수정체를 통해 망막까지 도달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장시간 노출되면 눈이 피로해지고 망막이 손상되며 황반변성 등도 초래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스마트폰이 노트북의 2배, TV화면의 5배에 해당하는 청색광을 뿜어내 눈에 치명적이라고 밝혔는데요, 다행히 청색광을 막아주는 애플리케이션들이 있습니다. 앤티 블루라이트, 블루라이트 스크린 필터 플러스, F.lux 등을 이용해 보세요.

### c. 마사지와 정기검진을 해 주세요

눈 운동과 마사지, 영양제 등은 사실 치료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눈의 피로를 풀고 기본 균력을 키우는 데는 도움이 되지요. 눈을 감고 힘을 준 후, 크게 뜨고 가볍게 상, 하, 좌, 우를 본 뒤 먼 곳과 가까운 곳을 번갈아 응시합니다. 양 손을 비벼 열을 낸 후 감은 눈을 눌러 혈액 순환을 돋고, 눈썹 인쪽에서 관자놀이 쪽으로 지압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정기적으로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을 하듯, 안과에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눈 건강을 체크해야 합니다. 특히 녹내장, 황반변성 등의 노인성 안질환은 초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게 중요한데 자신이 스스로 병을 알아차리긴 쉽지 않으므로 안과 검진은 필수입니다.



〈2015 NOROO INTERNATIONAL COLOR TREND SHOW〉에서 디자인 전략의 트렌드 적용에 대해 강연한 팬톤색채연구소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토드 술만 씨, 단장을 내려와서도 유쾌한 미소로 칭찬객들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지난해의 컬러였던 레디언트 오카드 위로 올해의 컬러인 마르살라 계열의 네일 아트가 모였습니다. 차분하고도 신비로운 레디언트 오카드와 묵직하면서도 열정 어린 마르살라의 조화도 아름답네요!



촬영을 위해 회의하는 모습을 연출해 주십사 부탁 드리니 "그럼 진짜 회의할까?"하며 리얼하게 오늘의 스케줄을 점검하는 노루페인트 수원지점입니다. 진지하게 회의하는 컨셉트인데 카메라 앞에서 그만 웃음이 터져버렸답니다. ^^

